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2

로마서 서론과 로마서 1:1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2부 로마서 서론과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우리는 로마서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배경과 바울, 고대 편지, 고대 수사학 및 로마서에 관해 일어나는 토론 중 일부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러한 배경의 일부에 비추어 로마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구축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1505년 구약성서의 인용문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의 긴장이나 화해라는 주제는 그 기원 초기부터 인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15년에는 서로 다른 시간에 바울을 방문하는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근무 일정이 달랐을 수도 있고, 퇴근 시간도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들이 교회 내의 서로 다른 두 파벌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 개 이상의 파벌이 있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유대인 집단인지 이방인 집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친법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이방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여기에는 일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에서 이 구절에서 구약성경을 그토록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장, 11장부터 13장까지를 보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글썄요, 우리는 아마도 그러한 구절의 핵심 용어가 주의 이름이나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일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어로 모든 사람, 누구든지 동일하다는 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복을 주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러한 차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16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1:16과 1:17은 책의 주제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일부 학자들은 책의 첫 부분에 대한 주제문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 좋은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상당히 빠르게 살펴보면 이방인들은 저주받았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는 방법이 별로 유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의 멸망을 강조하는 주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유쾌하게 요약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집에 쓰고 싶은 종류의 편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저주를 받았다면 모든 사람은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그는 구원에 관한 반대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의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구원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민족적 후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입니다. Paul은 계속해서 '아니요, 우리가 더 낫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그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는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사상은 6장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는 반대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대개 613개의 계명을 세면서 모두 지키거나 적어도 토라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세계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이방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일곱 계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이 시기에는 정확히 언제부터 일곱으로 세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계명과 그 사람이 의로운 이방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지켜야 했던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았으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니”라고 대답합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나였다. 나는 육체로 된 피조물입니다.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랍비는 토라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성과 열정 사이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악한 충동인 예치라(Yetzirah)와 선한 충동인 예치라 호토프(Yetzira hotov) 사이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좋은 충동이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기간에 그들은 악한 충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토라는 그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런 말을 했지만,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때 이 내용 중 일부를 아껴두어야겠습니다. 그들은 토라가 그들에게 악한 충동에 대항할 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자신에게 옳은 것을 알려 주지만 그를 옳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는 몇 가지 성경적 주제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낱과 입양, 상속과 구속, 속박으로 인한 탄식과 탄식에 대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출애굽에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똑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자신의 논증의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여겨질 것임이니라 루돌프 볼트만과 같은 일부 학자들은 9장부터 11장까지가 책의 요점과 관련이 없으며 아마도 다른 곳에서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학자들은 종종 이 장을 바울 주장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면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율법의 외적인 부분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지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자신의 주장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을 가졌습니까? 그는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 다 축복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약속을 받았나요? 오직 야곱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약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로마서 9장에서 예정론에 관해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부터 시작하여, 그는 존 칼빈과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사이의 현대 논쟁이나 다른 현대 논쟁에 개입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 선택된 백성이라는 개념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너무나 주권적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기준으로든 선택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민족성을 기준으로 당신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미리 아심을 근거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는 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왜 특정 사람들을 선택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포괄적이고 중요한 주제의 관점에서 그는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과 관련하여 선택은 민족성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로마서 11장에서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을 갖고 계시며, 유대인들이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차피 우리 유대교 신앙과 유산으로 개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당신은 우리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는 그것이 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질투가 유대 민족을 끌어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그의 주장의 신학적 요점의 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그러한 신학적 기초를 놓은 후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12장,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진짜 마음은 로마 이방인의 권위를 거역하지 말라 1절부터 7절까지인데,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의 진짜 마음은 사랑입니다. 서로. 그러므로 우리는 인종에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동료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들이 가끔 말했듯이 바울은 설교에서 간섭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고무가 도로와 만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실제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매우 자주 경멸했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로마 문학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주 발견합니다.

할례, 음식법, 성일 등이 그들이 관심을 두는 유일한 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율법의 일부로 관심을 두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매우 눈에 띄는 경계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서로의 음식 관습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서로의 성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5와 6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로마 이방인들이 로마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세 가지 중 두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2장과 4장에서 할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이 계속됩니다.

맨 처음에 그는 로마서 14장에서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많은 성경 참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제의 절정에 이릅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한다는 성경 본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 주제를 놓치면 로마서 15장에 있는 그 주제의 절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이방인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인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오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그들에게 빛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마지막 권고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에 어긋나게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길에 장애물을 두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는 거기에서도 몇 가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열에 대해 말할 때, 앞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로마 교회에는 어떤 종류의 분열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썄요,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이유, 그가 여기에서 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 특별한 표현을 제공하는 이유, 그것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 이유는 교회 내의 유대인-이방인 분열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유대인-이방인 분열과 관련된 것.

그러므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민족적, 문화적, 인종적 화해에 대해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하는지 가르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서로도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가 오늘날 전파하는 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많은 장소에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특히 그들이 지배적인 문화의 일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종 주류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소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권의 신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심지어는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조사에 일부 배경을 포함시켜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지도에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아마도 너무 작아서 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 이탈리아에서 방금 왔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적어도 많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고린도에 정착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에베소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로마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는 로마서 16장 3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난 그들을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분명히 유대인 신자 전체가 추방되었으며, 아마도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떠났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의 대부분은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최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 돌아왔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충돌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추방 기간인 클라우디우스의 추방 기간 동안 적어도 5년 동안 거의 완전히 이방인 교회에 있었던 신자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게 뭐죠? 입에서 돼지고기 냄새가 나요.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노선을 따라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바울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들처럼 유대 관습을 따르고 유대 관습을 존중하는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울 신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신학은 단순히 율법과 관련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의 다른 곳, 종종 율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편지를 보내는 회중에 달려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일부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육신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바울의 글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정당화, 법의학 모델.

관계형 모델인 화해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당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개념화하는 매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은 사람들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며 그 전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적인 것처럼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자율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바울의 모든 곳에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관한 바울의 다른 주제와도 일치합니다.

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회심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얻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글쎄요, 우리가 지역 문제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보편적 문제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배경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신학에 얼마나 집중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경계 표시에 대한 Dunn의 초점과 같이 일부 새로운 관점을 대조했습니다. 경계 표시, 할례, 음식법, 성일에 초점을 맞춘 제임스 던(James DG Dunn)과 믿음에 의한 칭의의 보다 일반적인 원칙을 보았던 루터(Luther).

이제 루터는 당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세 교회와 당시의 과잉에 대해 반응하던 당시의 문제를 맥락화하고 있었습니다. Dunn은 문화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Dunn은 이를 전달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루터의 더 큰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경계 표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로마서에 대한 다양한 주석과 주석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던(Dunn)은 성경 주석에 있어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좋은 논평은 Jewett입니다. 그의 Fortress 해설은 매우 좋습니다. 무는 훌륭합니다.

슈라이너는 훌륭합니다. 당신은 로마서에 관한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로마서가 사람들에게 탐구를 좋아할 만큼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논쟁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주석가들 중 어느 누구도 모든 점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 점만 고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던은 로마서 7장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본다. 내가 언급했듯이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서에 대한 매우 짧은 주석을 썼고, 이것이 내가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썼기 때문에 내가 이 강좌를 듣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Dunn이나 Jewett, Mu 또는 Schreiner 또는 그러한 분야에 들어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세부 사항, 문법적 세부 사항 및 다양한 견해를 가진 모든 저자를 인용합니다.

이것은 설문 조사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음, 순서대로 가면 로마서 1장의 첫 번째 구절은 1절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고대 문자의 표준이었던 보낸 사람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복음의 종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Kletos apostolos, apostolos, 그도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자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Paul이 누구인지 또는 Paul을 모르는 청중이 그의 이름에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들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청중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 시민권은 어디서 왔는가? 글썄요, 우리는 바울의 가계와 다른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다시 고려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후 예루살렘에서 해방된 사람들인 리버티니 회당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주 어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에게 노예가 있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음, 아마도 그 회중의 대부분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석했지만 그 회중의 대부분은 해방된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동로마 지역에서 매우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중 해방된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회당은 커뮤니티 센터로 기능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랍비 전승은 나중에 48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추측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에는 몇몇 디아스포라 회당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회당이 입증되었습니다.

랍비들은 나중에 그것을 언급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추측할 수 있으며, 사도행전 6~9장의 이 자유당 회당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곳의 Libertini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수도가 다소인 길리기아, 칼리키아 출신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디아스포라 회당에는 비문이 발견된 회당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비문에는 이 작품이 비타이노스(Vitainos)의 아들 디오도토스(Diodotus)가 헌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음, Vitainos, 그건 Vitaini와의 경기였습니다. 이는 디오도토스의 아버지가 해방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디오도토스는 아마도 로마 시민권의 지위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9장의 문법은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회당을 암시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그들의 지리적인 기원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해방된 사람들임을 암시합니다. 이제 미국에서와는 매우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 내 노예 중 1% 미만이 해방되거나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는 강제노동이 매우 빈번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노인 노예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부수적으로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자유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보상으로 풀려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했듯이 노예 소유자가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노예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는 상호적이었습니다. 이전 노예 소유자들도 그들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30세 이상이면 노예나 시민이 스스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디우스 치하에서는 시민권이 저렴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바울을 심문하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는 아마도 바울이 클라우디우스 통치 후반기에 더 저렴하게 시민권을 얻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좀 더 높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시민이 되는 법적 수단은 다양했습니다.

당신은 로마 가문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빌립보나 고린도와 같이 로마 식민지의 지위를 부여받은 도시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방 귀족이나 로마에 이익을 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제대한 보조병은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노예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해방된 노예는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양에서는 보기 드문 특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로마에서 이주해 왔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노예 혈통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Paul의 높은 지위를 강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 6장과 9절에서 자신의 노예 혈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소 바울의 사울이 실제로 이 회당의 논쟁에 연루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짜 배경이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이전에 유대인 로마 시민을 노예로 삼았던 해방된 노예의 후손입니다. 해방된 사람. 일부는 클라우디우스(Claudius)와 네로(Nero) 치하에서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상원의원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3장과 24-27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의 동생 파울루스.

폼페이우스에는 귀족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파괴된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의 귀족들은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민족의 역사적 상황과 일치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원전 1세기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로마 유대인들은 기원전 1세기, 기원전 1세기 60년대부터 자유를 샀습니다.

대부분은 로마에 머물렀다. 그리고 우리는 Philo와 다른 곳에서 이에 대해 읽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습니다. 해방된 상태.

그들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지중해 동부에서 지위를 얻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유대인 이름의 대략 절반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반 전체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특정 이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유대인인 로마 시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주요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바울의 이름을 보고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가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시민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침묵에서 나온 주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으로부터 나오는 특별히 좋은 논증도 아닙니다.

침묵의 일부 주장은 다른 주장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언급하는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에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타를 당하거나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그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처럼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강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서신에서 자랑을 피하는데, 이는 고대에 너희가 자랑하도록 허용된 적절한 예외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는 심지어 빌립보서 1장 7절과 30절에서 그것을 전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자랑하려 한다면 그는 그의 고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7절과 30절에서 그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 다 빌립보 시민은 아니었지만 실제 빌립보 시민이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든,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면 로마 시민으로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선례를 세웠을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에게 일어난 일은 나의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도 당신을 위한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의 로마 시민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높은 지위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바울을 단지 로마 시민으로 제시한 이유는 그가 높은 지위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는 Paul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싶었지만 동기가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는 그것을 발명하지 않고도 그것을 확립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발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기사 계급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상원 의원 계급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해방된 노예의 후손에 속했음을 시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거기에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어떤 위대한 일로 인해 이 큰 영예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바리새인을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과 5절에서 바울은 우연히 자신이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루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크가 시민권을 얻었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기된 또 다른 반대 의견은 시민권이 지역 엘리트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대 세계의 증거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에서 살아남은 비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로마 시민이 된 도시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식민지가 아니라 자유 도시이지만 이 에베소 도시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정보를 발견한 당시 조사된 비문에는 그곳에 1,173명의 로마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엘리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해방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노예가 해방되어 시민이 되었지만, 동방에서는 관리들이 그러한 지위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엘리트에게만 주어졌다는 생각은 심각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입니다. 역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또 다른 주장은 로마 시민이었던 유대인들이 이교 관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요세푸스와 로마 유대인의 비문은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필로와 가이우스에게 보낸 그의 사절은 로마에 유대인 로마 시민의 전체 공동체가 존재했으며 그들은 이교 관습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때때로 로마인들은 너무 많은 로마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바울의 시민권에 대해 제기된 또 다른 반대 의견은 바울이 비문에서는 트리아 노메나(tria nomena)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와는 달리 그의 서신에서는 트리아 노메나(tria nomena)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예 비문과 공식 문서였습니다.

바울은 부유한 후원자들처럼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그리스 로마 시민들은 대개 그리스어 방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 로마 시민이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한, 로마에는 50개의 유대인 로마 시민 비문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tria nomena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세 개의 로마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편지는 비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비문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 시민들은 세 사람의 이름을 편지로 썼나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Pliny는 그의 편지에서 항상 하나 또는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서신에는 종종 로마 이름 중 하나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단순히 자신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고대 증거에 기초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기된 또 다른 주장은 실제로 더 나은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궁극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채찍으로 맞지만 로마법에 따라 시민은 채찍으로 맞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민권을 보고한 누가도 그러한 구타를 보고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Varys와 같은 주지사들이 로마로 돌아갈 때 문제가 생길 것을 별로 걱정하지 않았지만 Varys의 경우에는 시민으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그러한

구타를 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에서는 나중에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로마 시민인 유대인 귀족뿐만 아니라 승마자, 즉 로마 기사 계급에 속한 유대인 로마 시민에게도 그러한 구타를 가했습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면 빌립보에서 구타당하기 전에 그의 시민권을 밝히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글썄, 빌립보는 그들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구타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밝히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고, 장기간의 재판이 진행되어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들은 다소로부터 인증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제한을 받고 빌립보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다소로 가서 문서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말입니다. 어쨌든 관리들은 마침내 그에 대한 사건을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그를 때리자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는 협상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의 간수가 그에게 알릴 때까지, 아니오,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그가 고린도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그가 입증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글썄요,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지지하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변증법으로 고안된 주장이 아닙니다. 뛰어난 학자인 조셉 피츠마이어(Joseph Fitzmeyer)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서에 대해서도 훌륭한 주석을 갖고 있습니다.

안티몬 사도행전(Antimon Acts)도 이를 주장하지만, 무신론자인 신약성서학자 기어트 루드만(Geert Ludeman)도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Paul의 별명입니다. 로마인들도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코그노멘(cognomen)으로 통했습니다.

동명인 Paul은 비문에서 거의 항상 동명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명, 이름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의 재사용된 코그노멘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한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존경할만한 로마 이름입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권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름만으로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가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암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아마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가정을 하게 하여 바울이 그들 중 가장 높은 지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로마 이름을 어딘가에서 얻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장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제로 로마 시민인 경우 주어집니다.

그의 시민권을 지지하는 또 다른 주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분기 전체, 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분기 전체입니다. 오직 시민만이 황제에게 호소하여 로마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 점에 관한 사도행전을 뒷받침합니다. 그의 편지는 모두 로마로 보내기 전이나 후에 쓴 것이지만, 함께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뒷받침해 줍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5장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로 가기 전에 유대 사람들의 반대를 예상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로마에 구금되었나요? 아마도 그가 유대에서 예상했던 고난 때문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 보내졌을 것입니다. 누가는 로마인의 보호를 장기간, 특히 유대에서 시작하여 필요한 것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을 거의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보호는 부끄러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변증적으로, 즉 바울을 변호하는 글을 쓰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도행전 전권 주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누가는 바울에 대한 로마의 추가 양육권과 같은 것을 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역사 논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사적 논문의 전체 4분의 1을 순전히 허구, 순전한 조작에 기초하여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시민으로서 카이사르에게 실제로 상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로마 구금 상태로 로마로 보내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자세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서술자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가라고 가정하거나 실제로는 제가 누가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Acts가 사용하는 소스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목격자 소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판에 관해서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모든 법률 문서, 모든 법원 문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연설 등의 녹취록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에게 공개됐다.

더욱이, 누가가 암시하는 정보는 그 주장에 부합합니다. 6:9의 자유인 회당에서 누가는 바울의 노예 배경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그가 무엇인가를 발명하려고 했다면, 그가 무언가를 발명했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것이 더 명예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바울이 로마 식민지를 목표로 삼았으며, 궁극적으로 로마를 목표로 삼았다는 몇 가지 뒷받침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식 이름은 누가복음에 의해 처음 소개되는데, 나는 사도행전에 대한 나의 연구에 근거하여 사도행전이 타당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로마식 이름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소개된다. 사울이라는 이름에 딱 맞습니다. 이중 이름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파피루스와 비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샤울(Sha'ul)이나 그리스 살라스(Salas), 라틴어 아폴로(Apollo)와 같이 로마식 이름처럼 들리는 유대인 이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살라스(Salas)는 그리스어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가 그 이름을 창안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트리아 노메나. 노멘은 계승된 씨족 이름이었지만, 별명으로 시작된 코그노멘은 제국의 주요 식별 이름이 되었고, 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Paul은 일반적으로 코그노멘(cognomen)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시민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로마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의 로마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Sergius Paulus의 새로운 방향.

이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로마서에서 노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따라서 그가 그의 편지의 다른 곳에서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매우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6, 6:18, 6:22, 7:6, 25, 9:12, 12:11, 14:18, 16:18 입니다. 그는 그것을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그는 8장 15절과 21절에서 노예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는 또한 1장과 9절에서 보다 전례적인 의미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특히 6장 16절부터 20절에서 노예 제도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유일한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종이, 의의 종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이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높은 지위인가요, 낮은 지위인가요? 우리가 다른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노예 제도는 당신이 누구의 노예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카이사르의 노예가 되면 때때로 상원의원보다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강력한 누군가의 노예라면, 당신은 큰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예로서 자신을 낮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것은 꽤 높은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대표자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처럼 자신이 사도라고 불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형용사이지만 분명히 그가 스스로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사명을 구했던 때와는 다릅니다.

그는 신자가 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름을 받는 데 혼자가 아닙니다. 1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클레이토스(kleitōs)라고 말합니다.

8장 28절에서 그는 우리 모두가 그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사 형태, 동사와 형용사 등 동족어가 항상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28에서 830까지 해당 동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형용사에서 동사로 이동합니다. 417, 만물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8장 30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9장 7절, 24절부터 26절.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청중과 나누는 내용입니다. 사도로 불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특정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사도직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용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글에서 이 용어를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유다를 대신한 것을 포함하여 거의 전적으로 12사도에게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도 행전 14장에서 예외를 둡니다. 그는 두어 번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지만 대개는 바울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며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가가 사용한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누가는 복음의 내용을 혼동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바울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는 그것을 실라와 디모데에게 적용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로마서 16장 7절에서 안드로니쿠스와 유니아에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그 다음 몇 구절 뒤에는 모든 사도들, 즉 위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파송된 누가의 70명이나 아포스텔로나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사도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글썄요, 하나는 그들이 표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12. 그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도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호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냄을 받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강조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맨 마지막에 세우사 배고프고 목마르고 학대받는 것과 온갖 일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승인과 권한을 의미합니다. 특별위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선교적 교회 개척자를 생각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일종의 바울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학에서 그들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사도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12명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승인,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특별한 위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예루살렘의 12사도 모두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것은 획기적인 일이며, 또한 바울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성경을 시작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여러 도시에서 스터디 그룹. 게다가 비지역적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보는 이유입니다. 장로들은 지역 회중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글썄,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신자들 중에는 사도들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의 관할권이나 그들의 활동은 지역을 초월하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한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의미에 다소 가까운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디다케(Didache)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세 가지 형용사, 자신을 가리키는 세 가지 묘사, 사도라고 불리는 종과 좋은 소식을 위해 구별된 사람, 아포리스 메노스(Aphoris Menos)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됨을 뜻하는 언어이다.

그는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 단어를 태에서 분리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아마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 태에서 분리되었다는 예레미야 1장 5절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종종 이 단어는 구약성서의 헬라어 번역인 칠십인역에서 봉헌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그곳에서는 60번 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50번 이상 잘못 말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어쨌든 봉헌을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몇 구절을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신자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별된 자로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구별되었습니까? 그는 좋은 소식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그것을 언급했고, 그의 편지가 계속되면서 그 생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자기 아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좋은 소식, 곧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의 전하는 복음에 어떻게 응하였는가를 따라 나의 복음을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10장 16절은 이사야의 언어를 암시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곳일 것입니다.

또한 11장, 28장, 15장, 16장, 19장, 그리고 16장, 25장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좋은 소식에 대해 여러 번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 동사인 좋은 소식, euangelion, 행복한 메시지, 좋은 소식, euangelizo,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좋은 소식을 로마에 더 완전하게 전하기 위해 로마에서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서 그는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소식의 배경이 되는 기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5장 20절에서도 동사를 사용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의 기초는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 즉 이 시대에 칠십인역이라고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버전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40장 등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만 특히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구원의 좋은 소식, 평화의 좋은 소식, 즉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맥락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이 있을 회복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미리 맛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 구원받거나 구원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싶다면 그는 그것을 여러 수준에서 사용하지만 그들은 아직 왕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변화됨에 따라 이미 이 좋은 소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이런 식으로 소개했을까요? 글쎄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통해 바울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아직 그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신임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하면 그들에게 더 많이 전파하고 싶다고 말한 것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복음 속으로, 그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지만,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중심 메시지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션에서 첫 번째 구절을 다루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그다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2부 로마서 서론과 로마서 1장 1절입니다.